



##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출 7:16, 8:20, 8:27-28)

### 인간의 목적, 선민의 목적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2.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3.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피조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항상 같이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때 인간은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고후 4: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4.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는 지혜로우시며, 영원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사 44:24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찢으며 땅을 베풀었고

시 148:5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음이라

대상 29:11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5. 이 땅의 모든 신들은 자기를 숨깁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땅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창조주를 알 수 없으므로 수많은 신을 찾아 헛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종교는 사람을 제물로 삼고, 동물을 섬기고, 그 종류도 많습니다. 인도에만 3,000만 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하여 평안과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 42:17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사 44:9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어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6. 애굽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고통뿐입니다. 애굽의 삶은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조금 더 쉬운 곳이 없을까?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없을까?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사람, 조금 더 좋은 옷... 그러다가 죽습니다.

애굽에는 한 가지 공통된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언제나 원망하는 것입니다.

민 14:27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민 16:11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관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출 15:24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북한에는 감사, 기쁨, 사랑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투쟁을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7. 이스라엘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 시 103:1-5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니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 시 107:8-9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라도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8.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사랑으로 경배를 드립시다(찬송 82장/새 95장, 507장/새 455장, 404장/새 304장). 무릎을 꿇읍시다.

- 시 95:6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 대상 16:29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 시 29:2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 시 98:4-6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 시 99:5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 시 99:9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소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9.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림으로 그와 그의 나라가 최고의 축복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4,000명의 찬양대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였고, 매일 두 번씩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렸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하나님께 끊임없는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삼하 6:13-15   여호와와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궤를 메어 오니라

대상 29:9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대상 23:30-32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하하며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와 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다윗의 노래를 함께 노래합시다(삼하 22:1-51).

10. 예배의 생명은 지난날에 대한 감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저주와 고통과 멸시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은혜, 그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수전 대에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후 9:15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시 100:4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10명의 나병환자 중에서도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눅 17:17-1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병 낫고, 결혼하고, 좋은 자동차 구입하고, 공부하고, 성공했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해방되어 감사의 예배가 되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성령께서 함께하실 때에만 신령한 산 예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됩니다(찬송 405장/새 305장).

1.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찬양드리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에게 복을 받고, 그를 의지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길이 막히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의 되어 비천하게 살았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와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강화 도령 원범이가 하루아침에 어명에 의해서 왕이 된 것과 같습니다(조선 시대 제25대 왕 철종, 1850년, 19세에 현종의 뒤를 이음).

눅 15:18-24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 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 이제 육신의 애굽 삶은 죽은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영의 아버지를 섬기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죄의 종이 되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불안해 하고 원망하며, 정욕을 좇아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삶, 마귀의 종노릇하던 삶은 흠 없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 롬 8:6-8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 갈 3: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 갈 5: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 갈 6: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 엡 2:1-4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 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 엡 2:8-10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 히 10:19-25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육신의 삶은 여유가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불만입니다. 목적도 없고, 목적이 있어도 동물적인 욕망으로 애인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고 얻은 다음에는 버리고, 돈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고 얻은 후에는 불안해 하고 죄 짓고, 자녀를 위하여 돈을 물려주나 그 돈으로 자녀는 더 큰 죄를 짓고, 다같이 지옥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3. 마귀는 육의 삶으로 유혹하고, 육의 정욕과 죄악으로 올무에 묶고,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마귀는 항상 속입니다. '묘지를 잘못 썼다. 조상이 울고 있다, 잠자는 방향이 나쁘다, 이사를 가라, 이름을 바꾸어라.' 끊임없이 속이고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헛되게 살게 하고,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마 4:3-9, 3절 - 돌이 떡이 되게 하라, 6절 - 뛰어내리라, 9절 - 내게 경배하라).

- 행 13:10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 마 13:39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수많은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수많은 공격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 엡 4:22-24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 엡 6:11-12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죄악의 유혹, 우상숭배의 유혹, 쾌락의 유혹, 세상 인기, 유행, 사치의 유혹, 문화적인 유혹, 공산주의의 유혹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한 가지도 허락지 않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가지고 국민을 아무 걱정 없이 먹이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입혀주고, 집도 주고, 고깃국도 준다고 하였으나 한 가지도 주지 못하고, 다 굶기고, 다 죽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길은 너를 위하여, 마귀의 모토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되는 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도 너도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4. 하나님 자녀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적 성장이 옵니다.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 자유를 누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큰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수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육의 삶은 없는 것만 보니 늘 불만이고, 부족한 것만 보니 늘 짜증이 납니다. 이제는 좋은 것만 보고, 있는 것만 보게 되어 늘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안이 열리니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 세계를 보고, 우주

를 보고, 하늘을 보고, 미래를 봅니다. 자연을 보고 자연운동, 이웃을 보고 이웃 사랑, 세계를 보고 세계 사랑, 하늘 나라를 보고 하나님 사랑, 부모를 보고 부모 사랑, 아내를 보고 아내 사랑을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가지므로 사람이 선해지고, 착해지고, 얼굴에 웃음과 미소와 사랑이 가득하고, 가슴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힘과 능력이 주어지므로 부지런하고 희생적이고 적극적인 성품으로 변합니다. 육신의 생명에 산소공급과 영양공급이 있어야 하듯, 하나님 자녀의 생명은 예배를 통하여 억척만 은혜와 축복이 공급됩니다.

5.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예배만 드리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불러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세계적인 복을 받고, 세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음으로 세계적인 박사로 자라나듯이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로,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로, 마귀의 종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저주에서 모든 축복의 백향목과 종려나무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 준비가 부족하고, 예배 자세가 좋지 않고, 예배에 관심이 적고, 예배보다 봉사와 기도에 더 관심을 가지면 영적 삶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엘리와 엘리 집의 멸망은 바로 예배에 있었습니다.

삼상 2:17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와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울도 예배가 죽었습니다.

삼상 14:35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삼상 15:22-23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울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배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딤후 4:7-8 명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새번역)

모든 것은 예배와 함께, 예배 후에 있어야 합니다.

시 97:12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7. 모든 축복된 자의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모든 존귀한 자, 능력 있는 자, 영광스런 자, 복된 자의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의 삶은 모두 예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창 8:20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창 13:18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무리 귀한 것을 찾아 귀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도,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어 성공할 것 같아도 예배가 없으면 오히려 원치도, 생각지도 않은 반대의 길이 확실히 옵니다.

8.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의 제사가 끝나고, 두려움으로 의무와 책임감으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끝나고, 누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 4:23-24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죄인이지만, 비천한 여인이지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눅 7:44-50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요 12: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바리새인의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예루살렘의 그 장엄한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감옥에서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여인의 예배입니다.

9. 하나님께서는 예배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축복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갈급한 심령에 단비 같은 은혜와 생수의 기쁨을, 질병에서 고침을, 무거운 짐을 벗고 위로와 치료를 받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품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시 131:2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 떼는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 떼는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고, 품고, 위기를 극복하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셨고, 솔로몬의 세계 최고의 지혜도 예배 후에 주어졌습니다. 예배는 실로 바다 같은 은혜, 하늘에 별 같은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어느 분야든지 예배는 우리를 최고로 만드십니다.

대하 1:6-7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대하 1:10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대하 1:12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같은 것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같은 것이 없으리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링컨을 보십시오.

10.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어야 참 예배입니다. 오직 주님만 보이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갈 6: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빌 3: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계 7:10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제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만 가득해야 합니다. 김치도 발효되기 전에는 배추, 생강, 마늘, 파, 고추, 젓갈 등 모두 각각의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를 날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적 축복을 주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나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봉사란 히브리 말로 아바드(עבד, עֲבֹדָה)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둘째는 이웃에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전자를 통하여 우리를 후자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런 삶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크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하여 귀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흙이 생기고 금이 가고 잘못 만들어지면 버리듯이, 어디 가도 가치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진리를, 그 지식을, 그 논리와 그 도덕과 그 인격을 그리고 그가 가르쳐주신 경영학, 정치학, 교육학, 가정학, 군사학, 미래학, 천문학, 예술, 음악, 애니메이션, 디자인, 문학, 드라마, 영농, 축산, 인문학 등 모든 분야를 가르쳐주고, 심어주고, 보여주고,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여, 전 로마의 정치, 권력, 생활, 습관, 교육 등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극히 나약한 죄수로 로마에 들어갔으나 전 세계는 바울을 따르게 되고, 바울에 의해서 100%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먹이 냄새를 맡고 달려가는 하이에나가 아닙니다.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는 독수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1. 예수님의 삶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마 20:27-28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9:35-37 예수께서 앉으사 열 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यो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배는 히브리 말로 아바드(עבד)입니다. 봉사도 아바드(עבד)입니다. 다 같이 Service입니다.

2. 봉사와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기쁨이 됩니다.

심장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온 몸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침을 연구해 보면 봉사, 겸손, 섬김의 삶을 살 때 면역력이 50%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엡 4:28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내게 사랑이 없으면 예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용광로에 있어야 할 사람이 너무 일찍 나온 것입니다.

롬 12: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쒀아 놓으리라

엡 4:31-32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3. 이웃과 문제가 있거나 악하고 버림 받은 사람을 외면하면 전자와 후자에 다 같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해도,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 같이 버림받은 것입니다.

눅 16:19-24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현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현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눅 18:10-14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며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며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제일 큰 계명, 십계명을 줄인 하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 22:37-39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눅 10:31-37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잘했으나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전자도 후자도 죽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를 물으십니다.

마 25:45-46 이에 임금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와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서 요셉으로 삽시다.

이 세상에서 바울로 삽시다.

**명성교회**